

“게이트볼로 강화 주민 한마음 돼”

전등사, 최대 게이트볼 대회 개최 동국대 일산병원 무료 진료 인기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는 4월 3일 강화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제7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2006년 첫 실시 이후 해마다 참가팀이 늘어나 올해는 역대 최다인 118개 팀이 출전해 단위 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전등사 회주 장운 스님은 대회사에서 “작은 정성으로 시작했던 대회가 이제는 규모가 가장 큰 대회로 성장해 감개가 무량하다. 이 대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열 대한노인회 강화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강화 게이트볼 대회가 이

렇게 규모가 커질 줄 몰랐다. 이 대회를 주최한 전등사 회주스님께 감사드린다. 규모가 커진 만큼 내용도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의회 유효룡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화군 길상면에서 이런 큰 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것은 전등사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가 넘어 끝났다. 열띤 경합 끝에 교동면 양갑팀이 우승을 했다. 준우승에는 역시 교동면 난정2리 팀이 차지했다. 이날 4강에는 모두 교동면 소속팀이 올라 결승전까지 열거 화기에애한 가운데 경기가 펼쳐졌다.

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은 “강화에서 게이트볼을 즐기는 사람이면 모두가 전등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 한다. 인천지역까지 포함해 1박2일로 대회를 개최하면 좋겠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신중히 퍼팅하고 있는 모습

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동국대 일산병원은 의료진을 게이트볼 대회장으로 파견해 한방 무료 진료를 펼쳐 지역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50여 전등사 신도회원들은 따뜻한 국밥과 부침개 떡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대회 참가자들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대접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송모제에서 대구 부인사 신도회가 한울복춤을 선보였다.

선덕여왕 호법 정신을 계승하자

제26회 송모제, 부인사서 열려

신라불교를 융성하게 이끈 신라 선덕여왕을 기리는 제26회 선덕대왕 송모제가 4월 5일 대구 부인사(주지 종진)에서 봉행됐다.

송모제는 선덕여왕 영정이 모셔진 송모전에서 한공의식을 시작으로 헌향, 헌다, 송모사, 참봉례, 정제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송모제에 앞서 선덕여왕 행차를 재연하는 거리 퍼레이드가 동화사 일주문에서 부인사에 이르는 3km 구간에서 펼쳐졌으며 베르데 예코 중창단의 노래 공연과 한울복춤 공연 등 문화행사도 풍성

하게 마련됐다.

또 부대행사로 탁승이 인형전시, 가훈 적어주기, 전통 한지공예 전시 등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불법의 힘을 빌려 난국을 극복하려고 했던 선덕여왕의 뜻과 서원을 받들어 송모제가 이 시대의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행자 선덕여왕 송모회장도 “송모제 봉행으로 어려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남북한의 대치가 눈 녹듯이 해소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에 선 체험하러 오이소~”

동화사, 국제관광선체험관 개관

대구 동화사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을 테마로 한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4월 1일 통일약사여래대불 앞에서 국제관광선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김법일 대구시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등 1천여 대중에 참석했다.

통일대불 지하공간에 조성된 선 체험관은 총면적 2710 제곱미터 규모로 한국불



교의 선문화를 소개하는 각종 영상과 사진 등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직접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사찰문화 관광상품 가치크다”

선운사, 팸투어 열띤 호응

고창 선운사에서 구미지역 여행사 관계자와 언론인 초청 팸투어(홍보 사전답사 여행)가 개최됐다. 4월 5일~6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선운사 팸투어에는 미국·캐나다·러시아·영국 등 8개국 29명의 여행사 관계자와 언론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륜 스님 지도로 발우공양과 타종, 예불 등 불교문화 체험이 진행됐으며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과 그의 차담도 진행됐다. 6일에는 진광 스님의 지도로 새벽예불에서 108배와 명상, 도솔암

묵언 포행 등 수행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날 ‘리더스다이제스트 캐나다’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엘리슨 켄트 씨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특히 한국사찰의 수려한 경관과 수행문화가 매우 매력적이었다.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만 스님은 “팸투어 행사는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와 불교수행문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자따마따 개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공동대표 법일)는 2012년 총 4회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따라 마음따라(자따마따)를 1박 2일 동안 개최한다.

3월 24-25일 강진 백련사를 시작으로 4월 28-29일 합천 해인사, 6월 23-24일 대구 유가사, 9월 8-9일 고창 선운사, 10월 27-28일 완도 신흥사에서 각각 봉행된다.

행사는 각 사찰의 유적 둘러보기, 다도, 차 만들기, 환경교육, 건기명상 등

의 내용으로 초등학교 2학년~6학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또 9월과 10월에는 어린이 생태학교가 영광 불갑사와 광주 증심사에서, 8월 3-5일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지리산마음캠프가 개최된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3월 31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 30여 평의 전용공간과 회의실을 마련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협약 눈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은 4월 6일 고창군청소년지원센터 외 6개 교육기관과 함께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된 학교사회사업은 고창고등학교 등 지역 내 5개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일탈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품성개발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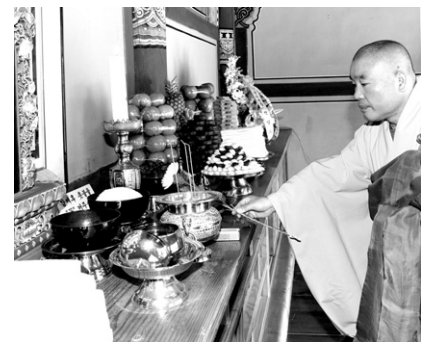
지역 내 여가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육구 충격을 위해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캠프, 청소년자원봉사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청소년의 학습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학습멘토링사업, 결연후원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갑사, 왕인축제 앞두고 고유재 봉행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와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3월 8일 도갑사 국사전에서 ‘2012년 왕인문화축제 원만 회향을 위한 도선국사·수미왕사 추모 고유재’를 열었다.

8년째 진행된 이날 행사는 4월 6-9일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펼쳐진 왕인문화축제 시작을 알리는 고유재다.

도갑사는 축제기간 중 템플스테이와 사찰문화유적을 안내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일반인과 일본답사단에 사찰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원법회에는 월우 스님, 김일태 영암군수, 박



영배 군의회 의장, 하대주 도갑사 신도회장 등 100여 대중에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좋은우리절, 청소년 인성교육 나서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3월 30일 ‘명상수행과 함께하는 한나무 인성교육’과 ‘신나는 청소년 주말문화노리터’를 개최했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청소년법회 운영단 지도법사 동헌 스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경쟁중심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자기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주말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침체돼 있는 청소년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여러 청소년 관련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강 장치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50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135,000원(일반형)
◇ 가격: 175,000원(고급형)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2년 4월 30일까지

◆개강일시: 2012년 5월 1일(화요일)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